

## 111 학년도 1 학기 유라시아재단 국제강좌

###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용” 시리즈(14)

#### 주제: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필요성과 의의

중국문화대학교 111 학년도 Eurasia 재단 국제 특강 제 14 회 강연에서는 재단 수석 연구원 정준곤(鄭俊坤) 교수를 초청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필요성과 의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정 교수는 Eurasia 재단의 활동 목적은 세계 분쟁을 해소하고, 교육을 통해 상호관계를 넓히어 세계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라 하였다.

개개인은 공동체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질서는 반드시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며, 우리는 미지의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갖고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해야 한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코로나 19 에 대한 공포와 상처, 불안감이 있을 것이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인 문제인 것처럼, 일본은 국가 지원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기관과 민간 기업, 국민들도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다. 정보 기술을 통한 정보 공유는 전 세계가 순식간에 동일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빠른 방법이 되었다. 이는 인류 최초로 글로벌 규모로 공유하고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를 「소유」와 「관계」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소유」란 인간이 요구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기술이나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연과학이 기업이나 국가와 결합하여, 점점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인간은 「소유」에만 의존하여 살 수 없는 존재이다. 「관계」란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개체로서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균형이 있어야 한다. 「소유」와 「관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심지어 공동체의 와해까지 초래할 수 있다. 세계에서는 「소유」가 「관계」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소유」와 「관계」가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무엇일까? 아무도 「소유」의 발전을 막을 수 없으며, 반드시 「관계」의 향상에 힘써야 한다. 개인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 「관계」의 향상은 반드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상상력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상상력의 공동체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인간 내면의 폐쇄적 관점과 제도적 장벽을 만나게 된다. 개인에 중점을 맞춘 내면은 편견, 선입견, 자아 형성 등의 요소로 구성되며, 성장 과정에 따라 가치관이 변하게 된다. 공동체에 중점을 맞춘 제도는 유지하는 것에

있어 반드시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하고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時間), 공간(空間), 인간(人間)이라는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여기서 「인간(人間)」이란 「じんかん」으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시간은 한 순간이 아니라 무한한 연결의 연속이다. 공간은 지리적인 영역이나 장소가 아니라 다양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공유 문화이다. 인간(人間)은 「인간(にんげん)」이 아니다. 근대(近代)에 와서 「human being」이라는 단어를 「개인」으로 잘못 번역하여 생긴 오역이다. 본래 의미는 사회 공동체의 뜻으로, 「인간(人間/じんかん)」이라 읽어야 원래의 뜻에 부합한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테러나 전쟁, 범죄 때문이 아니라 자살에 의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실제 자살하는 사람보다 2-3 배 정도 많다고 하였다. 즉, 연간 80 만 명 이상이 자살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240 만 명이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국가 공동체의 한계이며, 다수의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기하고 싶어한다. 국가는 국민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일부 사람들에게는 숨 쉴 틈이 없는 공동체가 된 것이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는 공동체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근대(近代) 국민 국가가 성립된 이후 주권국가는 통일을 위해 다양성과 새로운 것을 거부하였다. 변화가 없으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되어,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변화의 가이드라인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방향의 관점으로, 반드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한 집단의 국가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전을 공유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며,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예일대학교 역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거 가장 패권을 가졌던 국가는 광대한 국토나 많은 국민 수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포용력이라는 관용의 정신을 가진, 세상을 포용하는 다양성을 가진 국가였다. 자국 중심주의에 빠진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 새로운 리더 국가가 되는 공동체는 다양성과 포용력, 그리고 넓은 시각을 가지고 사물(事物)을 바라봐야 한다.

강연 마지막에는 21 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훈련과 연습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습득함으로써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공동체가 편안하고 살기 좋은 국가로 만들기 위해 만약 어느 한 지역을 폐쇄하게 되면 통합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동체가 개방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포용력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내적 폐쇄적 관점과 제도적 장벽인 「졸업(卒業)」을 통해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새로운 가치관을 얻음으로써 평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인간은 앞서 언급한 장벽 「졸업(卒業)」과 같이, 기존 가치관의 사고에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網頁連結: <https://eurasia.pccu.edu.tw/index.php>)

(日文撰稿: 齋藤正志 日文系教授 中文翻譯: 鍾季儒 日文系助理教授)

번역: 이세희(李世曦) 한국어문학과 석사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교수